

하위범주화 사전의 구축 및 자동 확장

이수선 박현재 우요섭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g9921094, g9921091, yswooo}@lion.inchon.ac.kr

Development and Automatic Extraction of Subcategorization Dictionary

Su-Seon Lee Hyun-Jae Park Yo-Seop Woo
Dep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University of Inchon

요약

한국어의 통사적, 의미적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해 하위범주화 사전을 구축하였다. 용언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문형 패턴과 의미역 (semantic roles) 정보의 표준을 정하여 이를 부가하였고 구축한 하위범주화 사전이 명사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계층 시소리스 의미 사전과 연동하도록 용언과 명사와의 의미적 연어 관계에 따라 의미마커를 부여했다. 논문에서 구현된 하위범주화 사전이 구문과 어휘의 중의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자동적으로 의미 태깅(Sense Tagging)된 말뭉치와 구문분석된 말뭉치를 통해 검증 작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하위범주 패턴에 대한 빈도 정보나, 연어 정보, 각 의미역과 용언의 통계적 공기 정보 등을 추출하여 하위범주화 사전에 추가시켰다. 또한 여기서 얻은 정보를 기준으로 하위범주화 사전을 자동으로 확장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확장시켰다.

1. 서론

한국어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속에는 주된 의미를 갖는 중심어가 있고 이 중심어에 나머지 다른 어휘들이 의미적으로 결속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중심어 역할을 하는 어휘가 바로 용언이고 나머지 어휘들은 이 용언에 의해 역할을 제한받게 되는데, 이 의존 관계를 용언의 하위범주라 한다. 한국어 처리에 있어서 통사적, 의미적 중의성 해결을 위해 하위범주화 사전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고 통사적 수준의 하위범주화 사전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축된 사전들은 구문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구문의 중의성을 파악하는 보조적 자료로서만 이용되어 왔다. 이는 물론 구축의 어려움도 있지만, 함께 연동되어야 할 적절한 의미 사전의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 또한 하위범주화 사전에 의미 마커 (semantic marker)를 부여할 때, 명사의 의미 사전인 시소리스 (thesaurus)에 기술된 어휘간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언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하위범주 패턴을 정의하고 패턴에 따라 하위범주 사전을 구축

하였다. 또한 명사의 시소리스[1]와 정합하여 보어를 선택 제한(Selectional Restriction)할 수 있도록 용언과 명사와의 의미적 연어관계에 따라 의미마커를 부여했다.

이렇게 구축한 하위범주화 사전을 단문분할된 말뭉치와 구문분석된 말뭉치를 통해 매칭 작업을 함으로써 하위범주 패턴에 대한 빈도 정보, 각 의미역과 용언의 통계적 공기 정보, 용언과 명사와의 연어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얻은 빈도 정보를 토대로 하위범주화 사전을 자동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하위범주화 사전의 설계와 구축

하위범주화 사전과 연동할 수 있는 명사 시소리스 사전을 고려해 용언과 명사와의 의미적 연어 관계에 따른 구축을 시도하였다. 그림 1은 구축된 하위범주화 사전의 예이다. 용언과 연계되어 구문적, 의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조사는 필수적 보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대표 조사로 삼고, 대표조사의 내용으로 사용되는 보조사나 복합 조사를 일부 수록하였다.

